

지방선거 본투표 위한 유권자들의 줄서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남중학교에 마련된 평화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역 본투표현장 이모저모

106세 할머니의 한 표... 투표열기 후끈

같은 동인데 투표소 달라 발길 돌린 시민 청소년 모의투표·선거 관련 112 신고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3일 전북 지역 역시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다. 전북에서는 106세의 초고령 유권자가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거나, 투표소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투표 현장, 각종 선거 관련 경찰 신고 접수 등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불편한 거동에도... 다음 세대 위해 투표소 찾은 106세 할머니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천3동 제1투표소에는 무려 106세 유권자인 김계순 할머니가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거동이 여의치 않음에도 보행 보조기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 할머니는 참관인 2명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할머니는 투표를 마친 후 "젊은 이들이 잘하고, 성공하고 하면 좋다. 나는 그것밖에 안 바란다"며 "투표장까지 오는 길이 힘들긴 해도 내가 한 표 한 표 찍어줄 게 또 (다음 세대에) 혜택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동인데 투표소는 다르다?

헛걸음한 시민들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투표소가 지정되는 만큼 몇몇 시민은 다른 투표소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특히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무슨 동이냐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지기도 해 일부 시민들은 당황하기도 했다.
삼천3동주민센터 바로 앞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이날 오전 당원집회 집 앞 투표소를 찾았지만 동이 달라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지정된 투표소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김제시 교월동 인근에서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내에도 거주자들이 많은 경우 편의를 위해 동별로 투표소 지정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며 "투표 참여 전 번지 선관위 홈페이지 및 투표 공보물을 통해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직 어리지만 우리도 한 표" 청소년 위한 모의투표도
아직 투표권을 행사할 나이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투표 현장도 열렸다. 전주YMCA 등은 이날 전주시 완산구 객사길 인근에서 청소년 모의투표장을 만들었다. 모의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실제



3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천3동 제1투표소에 무려 106세 유권자인 김계순 할머니가 투표에 나서고 있다.

투표 현장과 같이 주의사항과 함께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며 기표소 안에서 청소년들의 소중함 한 표를 행사했다. 청소년들의 한 김지우(17)양은 "저 하나로부터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며 "청소년들도 만약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교육권 선거의 경우는 저희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니까 더 후보자들이 청소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처에 포스터가" "소란 피운다" 선거 관련 112 신고 접수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112 신고도

함께 접수됐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찰에 들어온 선거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모두 9건이다. 지선 관련 상담 문의가 5건, 교통불편 신고가 3건, 소음 발생이 1건으로 집계됐다.
익산에서는 "누군가 투표소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신고자가 이를 취소해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았다. 고창에서는 투표소 인근에서 몇 명이 모여 사건을 찍는다고, 정읍에서는 승용차에 특정 후보 포스터가 부착된 채 달리고 있다는 내용 등의 신고도 들어왔다. /뉴스

"이번 선거, 정치 풍향 바뀌놓을 변곡점... 헌법 제1조 의미 상기시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위대한 전북도민들께서는 1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82%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대위는 마지막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텃밭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1년 전 내일이 평정됐듯 무도한 정치권력의 함이 주민자들의 도도한

김관영 도지사 후보 선대위
민심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내란 당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최초로 계엄의 위법성을 알려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유일하게 받았다"면서 "이런 후보에게 내란방조 프레임 씌워 특검조사까지 받게 만든 것이 이번 도지사 선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3일 밤 판가름 날 선거 결과는 비단 전북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을 바꿔 놓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면서 "민심을 왜곡한 정치권력의 무도함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철저히 목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 공천 후보는 물론이고 전북도당, 중앙당으로부터 전방위 공세를 받으며 선거 운동을 해 왔다"면서 "그들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범죄자로 규정했는가 하면,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허위 인사를 서슴없이 내뱉으며 김 후보 고립을 획책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는 "정청래 지도부의 용단폭격식 네거티브에 맞서 네거

티브 종식을 선언한 김 후보가 정쟁 대신 민생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한 것은 이번 선거의 고귀한 결실"이라면서 "그 결과 얻어낸 것이 알토란 같은 정책 제안이고 이 가운데 285건이 민생 97기 정책공약으로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민들을 향해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곁으로 한 발 다가서서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박수를 받고 있다"면서 "과연 대통령과 한마음으로 동반 성장을 도모할 인물이 누구인지 엄중하게 가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도, '국제 스포츠-시티노믹스 경영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제 스포츠-시티노믹스 경영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제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방향과 실행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과 전북형 국제 스포츠 도시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전북연

구원이 스포츠-시티노믹스 개념 정립과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사업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스포츠를 도시재생·도시경영·도시마케팅과 연계한 전략 개념

으로 접근하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연계한 도시 발전 방향과 스포츠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도민 스포츠 참여도와 숙박·경기시설 등 기반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전략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만호 기자

중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신규 참여기업 50곳 선정 181곳, 107.5억원 지원... 기술개발부터 ESG까지 맞춤 지원

전북자치도는 지난 2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 참여기업 5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접프업 기업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역량을 따라 돌음기업(매출 1~10억원), 도약기업(10~50억원), 선도기업(50~1,500억원), 혁신기업(3년 평균 매출 100억원 이상+전년도 수출 50만 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수출 500만 불 이상)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자치도의 대표 기업 육성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기업은 돌음기업 17개사, 도약기업 12개사, 선도기업 13개사, 혁신기업 3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5개사다.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반도체, 농생명,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도는 이들 신규 선정기업을 포함해 총 181개 기업에 107억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투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사업'(돌음기업)과 '기술도약 현장실습(PC) 지원사업(도약기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도 강화했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선도기업을 위해 우수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반영한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수요 맞춤형 지원과 ESG 진단

및 개선지원, 기업 직급별 교육 등을 추진해 기업성장 단계별 최적의 지원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원 성과는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돌음기업 매출은 517억원에서 553억원으로 증가해 6.9% 성장했다. 도약기업은 1,427억원에서 1,538억원으로 7.7% 증가했고, 선도기업은 2,934억원에서 3,252억원으로 10.8% 성장했다. 혁신기업은 312억원에서 414억원으로 32.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역시 5,404억원에서 6,010억원으로 늘어 전반적인 성장세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성장단계가 상향된 접프업 기업 증가가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기업이 일정한 성장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 성장 모델이다. 지난해 12개사였던 접프업 기업은 올해 15개사로 확대됐다.
돌음기업에서 도약기업으로,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이 기업이 한 단계씩 성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매출 증가와 접프업 기업 확대라는 성과는 기업과 행정의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공지능,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만호 기자

도, 시설원에 밀집지역 여름철 충수해 대비 점검

익산 망성·성당면 일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익산 망성면과 성당면 일원에서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준호 도 경제부지사는 과거 집중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 북부 시설원예단지지를 찾아 복구 상황과 재해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
익산 북부권은 상추와 토마토, 수박 등 시설작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해 취약지역이다. 최근 3년간 2,500여 농가가 피해를 입는 등 여름철 재해 대응의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어 화산리 배수장을 방문해 배수펌프 가동 상태와 비상발전기 운영 여



부, 원격제어 시스템 등 비상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배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시설 관리를 당부했다.
신북면 연동 계수문에서 발생하는 물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계수문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연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
도는 농업재해대응 TF를 중심으로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배수와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도, 지방하천 재해복구 현장 점검

완주 장선천·괴목동천 일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일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과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우기철 대비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은 공정을 65%,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은 공정



률 60%를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는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 주요 구조물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도 등 우수 지장물을 우선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오만호 기자